

살수대첩

우중문(于仲文),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기를!

612년(영양왕 23)



살수대첩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개요

612년(영양왕 23) 살수(薩水: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의 지략으로 고구려가 수를 크게 물리친 전투이다.

2 양제(楊帝)의 친정(親征)

612년(영양왕 23) 정월 양제는 113만 3,800명의 군사와 그 배가 되는 군량 운반자를 거느린 대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와의 전쟁에 직접 나섰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현재 고구려의 영역은 원래 중국의 땅이었다는 것, 거란과 말갈의 일부를 고구려가 흡수한 것, 598년(영양왕 9) 고구려가 요서를 선제공격한 것, 수에 사신을 보내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길을 막은 것, 고구려의 세금이 무겁고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고통스럽다는 것 등을 들면서 수의 고구려 원정의 명분을 밝혔다. [관련사료](#)

2월 요수(遼水)에 이르자 양제가 공부상서(工部尙書) 우문개(宇文愷)에게 부교(浮橋)를 만들게 하여 강을 건너고자 했으나 만든 부교가 짧았고 고구려군이 이를 틈 타 공격하였고 수의 맥철장(麥鐵杖), 전사웅(錢士雄), 맹차(孟叉) 등이 전사하여 첫 전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소부감(少府監) 하조(何稠)에게 명하여 다리를 늘려 요하를 건너 고구려군을 대파하였다. 이에 승세를 타고 요동성 일대에 체류하면서 전진하지 못했다. [관련사료](#)

양제는 군사의 나아가고 멈추는 일을 모두 자신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를 것을 명령하였던 까닭에, 수의 군대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과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고구려는 양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명령 체계를 역이용하였다. 수의 군대가 양제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이에, 고구려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방어체계를 보완했으므로, 수의 군대는 요동성조차도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다. 수의 군대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양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장수들에게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데 내가 그대들을 죽이지 못하겠는가?”라고 엄포를 놓아 군기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관련사료](#)